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공동체 상영관 참여		
문의	사업: 기획운영팀 박민경 t.031-201-8534 m.010-8762-3216 취재: 학예연구팀 김지수 t.031-201-8542 m.010-6750-045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년 9월 4일(목) 이후	쪽수	총 7매

백남준아트센터,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공동체 상영관 참여 <더 폴: 디렉터스 컷>, <스트레이트 스토리> 등 상영



- ▶ 지역과 함께, 백남준아트센터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여
 -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라는 주제로 3일간 15곳의 상영관에서 총 56편의 영화 상영
 - 백남준아트센터는 상영관 운영과 첫 페스티벌 부스 참여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
- ▶ 9월 12일(금)부터 9월 14일(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홀 상영
- ▶ <스트레이트 스토리><더 폴: 디렉터스 컷> 등 리마스터링 영화 상영
 -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 진행, 자율 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야외축제 페스티벌 부스 첫 번째 참여
 - 2개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오는 9월 12일(금)부터 9월 14일(일)까지 용인 수지구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에 공동 상영관과 페스티벌 부스로 참여한다. 올해 영화제는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공간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창적인 영화축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공동 상영관 운영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페스티벌 부스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여 시민들과 더욱 다층적인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머내마을영화제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여 지역 기반 영화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5개의 상영관에서 총 5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 상영관은 올해 영화제에서 ‘다시, 빛나는 장면들’을 주제로 특별한 리마스터링 영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월 12일(금) 오후 3시에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스트레이트 스토리(2001, 2023 재개봉, 110분)를 상영한다. 잔디깎이를 타고 먼 여정을 떠나는 노인의 이야기로, 삶과 시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이어 9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는 프레드 바직 감독의 매체는 매체다(1969, 29분)를 자율관람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 작품은 백남준의 「전자 오페라 1번」을 포함한 여섯 명의 작가들이 새로운 비디오아트를 탐구한 실험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9월 14일(일) 오후 2시에는 타섬 싱 감독의 더 폴: 디렉터스 컷(2024, 119분)을 상영한다. 압도적 영상미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상영 후 영화 평론가 허남웅과 함께 하는 씨네토크로 이어져, 작품의 미학적 가치와 영화예술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상영 전후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당신의 장면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에 답하며 짧은 글을 남기거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나만의 컷 SNS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화 감상의 여운을 확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Post-it! Paik>이라는 부스 명으로 머내마을영화제 페스티벌 부스에도 참여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는 포스트잇을 작성 후 이를 부착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영화제의 주제 ‘빛’과 연결된 백남준의 대표작 <촛불 TV>를 함께 구현한다.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루는 과정은 영화제의 공동체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경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전시 문화상품인 타투스티커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와 영화제를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백남준아트센터가 머내마을영화제의 상영관으로 함께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백남준이 예술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과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왔듯, 이번 참여 역시 지역과 예술이 서로를 비추고 확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적 실험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백남준아트센터 공동체상영 개요

영화제명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기간	2025년 9월 12일(금)~2025년 9월 14일(일), 삼일간
상영장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상영작	<스트레이트 스토리>(2001, 2023재개봉), <매체는 매체다>(1969), <더 폴: 디렉터스 컷>(2024)
상영시간	- <스트레이트 스토리>: 9월 12일(금) 오후 3시/1회 상영 - <매체는 매체다>: 9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1시 자율관람 - <더 폴: 디렉터스 컷>: 9월 14일(일) 오후 2시/1회 상영
관람인원	회당 각 50명
신청방법	영화제 예약폼에서 신청 https://forms.gle/8JnDpvPLK3Hnscgj7
기타	자율좌석제, 관객 설문조사 및 촬영사진 활용 가능

■ 영화제 소개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기간: 2025년 9월 12일(금)~9월 14일(일)

장소: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상영관 15곳

주최: 비영리단체 머내마을영화제, 예술플랫폼꿈지락협동조합

주관: 머내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상영작

개막작 <딸에 대하여>(9.12(금) 저녁 7시)

야외영화축제 <플로우>(9.13(토) 저녁 7시)

폐막작 <나도감독 상영전: 스페셜>(9.14(일) 저녁 6시)

※상영관

공간무빙, 느티나무도서관, 동천동성당, 모두의영화를보여줘, 문탁네트워크/파지사유, 백남준아트센터, 수지농협동천지점, 수지신협문화센터, 숲속도서관, 용인장애인연대, 이우교육공동체, 이우생활공동체, 이우학교, 인더볼, 책방우주소년, 파티마수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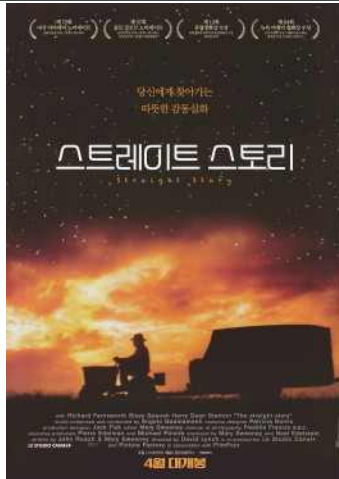
※부대행사

- 페스티벌: 체험부스 10곳, 먹거리부스 8곳, 포토존, 씨네프렌즈 등
- 씨네프렌즈 14곳 참여: 할인 행사 등

※홍보영상 등 링크

- 머내마을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meonaeff.com/>
-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트레일러 <https://url.kr/ci5qih>

■ 상영작 소개



스트레이트 스토리
감독 데이비드 린치
개봉 2001.12.01. (2023재개봉)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10분
배급 블루필름웍스

· 내 용

- 지긋한 나이에 병은 점점 깊어지지만 도움은 필요 없는 고집불통 큰 데레 할아버지 ‘앨빈’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형을 만나기 위해 떠날 계획을 세운다. 심각한 노안에 허리도 좋지 않은 앨빈은 운전면허도, 차도 없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낡고 이상한 잔디 깎이 트랙터뿐. 트랙터에 소시지와 장작을 가득 싣고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앨빈은 힘든 몸을 이끌고 6주간의 긴 여행을 시작하는데..

· 이벤트

- 1) 상영 전후 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 (참여 시 굿즈 증정)
 - 지금, 당신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관객 대상 질문카드에 답변 작성
 - #NJP_나만의컷: 관객 대상 전시장 내 미장센이 돋보이는 장면 촬영 후 SNS 업로드
- 2) 영화제 팸플렛 지참 시 카페 음료 할인 10%(9.12~14)

· 관련 정보 링크

- 영화 예고편 <https://url.kr/vc5con>



매체는 매체다
작가 프레드 바직
연도 1969
상영시간 29분
저작권 백남준 에스테이트

· 내 용

- 1969년 3월 23일 보스턴의 WGBH 방송국에서 방영된 《매체는 매체다》는 미국 최초의 비디오아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6인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텔레비전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수백만을 위한 미술관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알도 탐벨리니의 〈블랙〉, 토마스 태들록의 〈아키텐론〉, 앨란 캐프로의 〈헬로〉, 제임스 시라이트의 〈카프리치오〉, 오토 피네의 〈일렉트로닉 라이트 발레〉, 마지막으로 백남준의 〈전자 오페라 1번〉이 순차적으로 방송되었다.

· 이벤트

- 1) 상영 전후 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 (참여 시 굿즈 증정)
 - 지금, 당신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관객 대상 질문카드에 답변 작성
 - #NJP_나만의컷: 관객 대상 전시장 내 미장센이 돋보이는 장면 촬영 후 SNS 업로드
- 2) 영화제 팸플렛 지참 시 카페 음료 할인 10%(9.12~14)

· 관련 정보 링크

- 비디오 <https://url.kr/e66i4z>



더 폴: 디렉터스 컷
 감독 타셈 싱
 개봉 2024.12.06.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판타지
 상영시간 119분
 배급 오드 AUD

· **내 용**

무성영화 시대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스타트맨 ‘로이’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와 친구가 되고, 매일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를 해준다. 이야기는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신비의 세계로 데려간다.


· **이벤트**

- 1) 상영 전후 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 (참여 시 굿즈 증정)
 - 지금, 당신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관객 대상 질문카드에 답변 작성
 - #NJP_나만의컷: 관객 대상 전시장 내 미장센이 돋보이는 장면 촬영 후 SNS 업로드
- 2)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폴: 디렉터스 컷> 씨네토크
- 3) 영화제 팸플렛 지참 시 카페 음료 할인 10%(9.12-14)

· **관련 정보 링크**

- 영화 예고편 <https://url.kr/625tg2>

■ **상영관 소개**

보유시설	현장 사진	
<p>랜덤 액세스 홀 위 치: 아트센터 1층 스크린: 249인치 좌 석: 50석+@ 냉난방 및 음향, 조명, 암막커튼 등</p>	 <p>입구/ 내부 좌석 / 상영 중</p>	 <p>실제 행사 및 영상 상영 모습</p>

■ 페스티벌 부스 소개

부스정보	행사내용	
 <p>용인 목양교회 야외 크 기: 6m*3m 부스명: Post-it! Paik 일 시: 9월 13일(토) 16시~19시</p>		
	<p>포스트잇으로 작품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안에 무엇을 담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관람객이 포스트잇을 부착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 머내마을 영화제의 주제 ‘빛’과 연결된 백남준의 대표작 「쫓불 TV」를 함께 구현 	<p>타투스티커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전시 연계 문화상품인 타투스티커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

별첨자료

1. 영화제 포스터 1종
2. 상영작 포스터 2종
3. 영상 스틸컷 1장
4. 상영관 사진 3장
5. 페스티벌 부스 사진 1장